

# 혈중 AFP가 상승된 악성 비호즈킨성 림프종 1례

백창원\*, 박경화, 윤소영, 최인근, 서재홍, 최철원, 김병수, 신상원, 김열홍, 김준석

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

악성 림프종의 종양 표식자는 LDH 및  $\beta 2$  microglobulin이다. 반면 alpha-feto protein (AFP)은 간을 비롯한 소화기 종양의 표식자로 알려져 있다. 그러므로 거의 대부분의 악성 림프종에서는 AFP의 상승이 발견되지 않는다. 최근, 일부 호즈킨성 림프종(Hodgkin's lymphoma)에서는 AFP의 상승이 관찰된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수례 보고된 바 있었다. 그러나 악성 비호즈킨성 림프종(non-Hodgkin's lymphoma, NHL)에서 AFP의 상승이 관찰된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보고가 없었다. 이에 연자 등은 NHL로 확진된 상태에서 종양 표식자로 AFP의 혈중농도가 상승한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.

증례: 평소 건강하던 남자 30세가 내원 15일 전부터 악화된 기침 및 오한을 동반한 발열을 주소로 내원하였다. 과거력상 특이소견이 없었다. 내원 당시 시행한 말초혈액검사상 혈색소 12.5 g/dL, 헤마토크릿 40%, 백혈구 8,500/ $\mu$ L, 혈소판 230,000/ $\mu$ L로 정상이었다. 혈액화학검사에서는 LDH가 800 IU/L,  $\beta 2$  microglobulin이 2.8 mg/dL로 상승되었고 AFP 혈중농도 또한 450  $\mu$ g/L로 높은 소견이었다. 간 및 신기능, 전해질 검사는 모두 정상범위였다.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에서는 직경 12x10x7 cm로 종격동이 비후되었고 기관 주위로 다량의 림프절 종대를 관찰할 수 있었다. 복부 및 요부 촬영에는 특이소견이 없었으나 골주사 핵의학 촬영 결과 요추에서 양성 소견이 발견되었다. 골주 조직생검에서는 특이소견이 없었다. 이에 전산화 단층 촬영하에 경피적 림프절 조직생검을 실시한 결과, anaplastic large cell NHL로 확진할 수 있었다. 그 후 본 환자는 CHOP, ESHAP, Taxol, Topotecan 등의 매우 다양한 복합 항암화학요법을 실시하였지만 반응이 없었다. 이에 BEAM 고용량 화학요법 및 비혈연간 조직적합성 항원 일치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을 시도한 결과 부분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다. 현재 본 환자는 Fludarabine, Ara-C, Cisplatin 고용량 화학요법 및 동일한 공여자의 G-CSF로 가동 후 말초혈 분반술로 채집된 혈액에서 CliniMACS(Amgen/AmCell)를 통하여 정제된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받고 임상적 호전상태에서 추적관찰 중에 있다.

# B형 간염 항원 양성인 악성 림프종 환자의 임상양상 및 항암 화학요법 후 간 기능 변화에 대한 고찰

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 김지현\*, 오도연, 나임일, 이세훈, 허대석, 방영주, 김노경

목적: HBsAg 양성인 악성 림프종 환자에서 항암화학요법 후에 간 기능 이상이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우리 나라의 B형 간염 항원 양성율은 약 5-10 %로 높은 반면 HBsAg 양성 환자에서의 항암화학요법 후 임상 양상에 대한 보고는 드문 실정이다. 이에 저자들은 악성 림프종 환자를 대상으로 HBsAg 양성율과 항암 화학요법 후 간염 발생의 임상양상 및 그 위험인자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.

방법: 1996년 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악성 림프종으로 진단 받은 331명의 환자 중에서 B형 간염 항원 검사를 시행했던 318명을 대상으로 치료 전후의 간 기능, 치료 방법 및 임상경과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.

성적: 총 318명의 환자 중 11.9%인 38명이 HBsAg 양성이었다. HBsAg 양성 및 음성 환자사이에서 성별, 조직학적 아형, 병기, B 증상, 악성 림프종의 간 침범 유무, 초기 간 기능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HBsAg 양성 환자의 중앙 연령 값이 42세로 음성환자의 52세보다 낮았다. ( $p<0.0001$ ) 242명이 2회 이상의 항암화학요법을 받았고 26명의 HBsAg 양성 환자 중 15명 (57.7%)에서, 216명의 HBsAg 음성 환자 중 20명 (9.3%)에서 정상 3배 이상의 ALT 상승을 보이는 간염이 발생하였다. ( $p<0.0001$ ) HBsAg 양성 환자에서 치명적 전격성 간염, 황달성 간염, 비황달성 간염이 각각 2예 (7.7%), 8예 (30.8%), 5예 (19.2%) 발생하였고 HBsAg 음성 환자에서 각각 0예(0%), 1예(0.5%), 19예(8.8%) 발생하였다. HBsAg 양성 환자에서 간염은 평균 4회 (1-8)의 항암화학요법 후에 발생하였으며, 성별, 연령, 조직학적 아형, 병기, 간 침범 유무, 화학요법의 종류, 초기 간 기능, HBsAg 유무 중에서 간염 발생의 위험도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위험인자는 발견되지 않았다.

결론: HBsAg 양성인 악성 림프종 환자에서 항암화학요법 중 간염이 높은 빈도로 발생하였고 일부 환자는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하였다. HBsAg 양성인 악성 림프종 환자는 자주 간 기능을 평가하여 조기에 간염 발생을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해야 하며 향후 전향적 연구를 통한 간염 발생 위험인자의 정립과 나아가 예방법의 발견이 필요할 것이다.